

지면안내

대주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봉축 특집52면 발행

특별인터뷰 /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 .....8~9면  
특별기고 / 법산스님 ‘부처님오신날의 참뜻’ .....11면

특별기획 I ‘소통으로 함께 하는 세상’

특별인터뷰 / 고건 사회통합위원장 .....13면  
불교에서 말하는 소통은 무엇인가 .....14면  
잘못된 소통 사례 무엇이 문제인가 .....15면  
4대강·이주민...사회와 소통하는 현장 .....18면  
초의차로 외국인과 소통하는 현장 .....19면

특별기획 II ‘화합으로 함께 하는 세상’

대만 성운스님에게 듣는 ‘화합’ .....23면  
꽃으로 하나되는 여성 종교인들 .....24면  
석불사 비구니스님 20명 아름다운 동행 .....25면  
이주노동자 지원하는 외국인스님 24시 .....28면  
나눔 화합의 공덕 갖는 무료급식 현장 .....29면

특별기획 III ‘연등축제’

화합한마당 연등축제 .....41면  
연등회의 문화재적 가치 .....43면  
‘고전’으로 보는 연등회 .....45면  
‘화보’ 연등축제 현장 .....46~47면

특별기획 IV ‘행복을 얘기하다’

수행으로 행복 찾은 가족이야기 .....48면  
우리 걸 선재들의 부처님오신날 ‘발원’ .....50~51면

불기 2554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결계 신고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불기2554(2010)년도 하안거 대중결계 및 포살 시행을 공고했다. 결계신고일은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소제 또는 거주지 관할 구역 교구본사에 신고하면 된다. 공갈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해야 한다. 결계 신고를 하지 않아 결계록에 등재되지 못할 경우 비구·비구니계 수지, 각급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사에서 제한을 받

는다. 이와 함께 종단 소속 스님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 실시하는 포살에 필히 참여해야 한다. 단 승랍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의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 6개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중인 스님, 결계 기간 중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결계 기간 중 1개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군복무 중인 스님 등은 예외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부처님 가르침 등불로 사바세계 정토로”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 등 주요 종단 대표 봉축메시지 발표해

정진과 자비로운 보살행, 화합 당부...천안함 침몰사건 희생자 애도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세상’이란 봉축 표어에 맞게 주요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을 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다툼의 천태만상 속에서 갈등의 공유면을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하고 백가쟁명 속에서도 원용화쟁의 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소통의 정신을 역설했다. “대화와 타협은 공생(共生)을 위한 또 다른 지혜”라면서 “사통팔달 소통으로 막힌 곳이 없으니 남녀노소(男女老少)와 내외좌우(内外左右)가 언제나 화합의 광장에서 춤을 춘다”고 강조했다.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원용화쟁의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소외된 이웃

△다문화가정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에 관심을 갖는 한편 종교 간 화합에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축사에서 “스스로 등불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여일(如一)한 정진과 자비로운 보살행을 통해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로 삼자”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장사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사를 통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에 따라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길 강조했다. 또한 남을 배려하고, 나와 불타(佛陀)가 둘이 아닌 진리를 명심하여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부처님께서

는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일체중생의 행복과 영원한 자유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며 “만물의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동체대비의 가르침은 미혹 중생의 두터운 무명(無明)을 깨치고 번뇌와 탐욕, 어둠으로 묻힌 우리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깨달음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며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고 삶의 순간마다 깨어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깨달음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은 “격정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음어리진 우리 중생에게 부처님께서께서는 우리가 본래 늙을 것도 죽을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임을 가르쳐 보

여주셨다”며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개시오입(開示悟入)하신 일대사의 인연”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우주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쳐 여러분이고 세상의 미천한 미물들”이라며 “사월초파일, 꽃바람에 타고 실려 온 이 거룩한 소식에 모두 마음 모아 합장하자”고 격려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장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과 지혜가 넘치고 희망과 자비가 가득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체유정을 이익케 하고 안락케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 기운을 내어 쓰는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일체중생의 삶이 지혜로운 행동 바른 말 그리고 진실한 생각으로 넘쳐 복과 지혜 가득하길 서원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주요 종단 총무원장들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발표한 봉축사에는 ‘지금 우리 사회’의 지향점과 한국불교의 좌표를 발견할 수 있다.

이성수 · 장영섭 기자

정암사 템플스테이 연수원 기공

16억원 투입...연말 완공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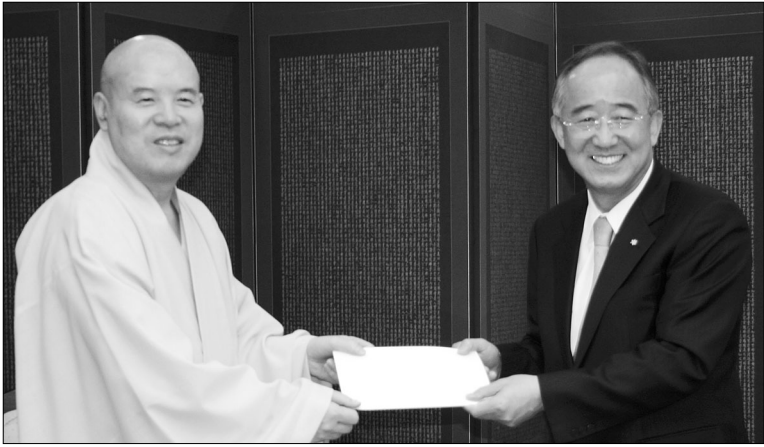
정선 정암사(주지 정광스님)는 지난 12일 템플스테이 연수원 목우당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갔다. 사찰과 광해관리공단, 정선

군 등이 총 16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립하는 템플스테이 연수원은 지상 2층 연면적 396㎡규모로써 오는 연말 개원해 불자들의 수행과 템플스

테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암사 주지 정광스님은 “템플스테이 연수원 건립으로 적멸보궁 정암사를 찾는 불자들이 보다 편한 환경 속에서 기도와 수행활동을 갖고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동국대, 총무원에 봉축기금 전달



오영교 동국대학교 총장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위원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2000만원의 봉축기금을 전달했다. <사진>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오영교 총장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약학

대학을 유지하는 등 학교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조계종과 동국대의 동반자적 관계가 앞으로 더 지속돼야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진다”며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화답했다.

이성수 · 장영섭 기자

총무원장 봉축사

<1면에 이어>

천안함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청안을 기원드리며 더불어 걱정해 주시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주신 모든 국민들은 이 공덕으로

원하는바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길 지심 축원드립니다.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등불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삼아 여일(如一)한 정진과 자비로운 보살행을 통하여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입니다.



현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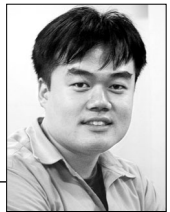
현대철학의 관점에서 간화선의 의미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오는 28일 개최하는 봉축세미나 ‘간화선, 철학을 만나다.’ 그간 조계종의 정통수행법인 간화선을 불교사 내부의 사조로 다루거나 남방 불교 계열 수행법과 비교하는 논의의 장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외곽의 시선에서, 그것도 모든 학문의 출발이라는 철학의 프리즘으로 살피는 학술회와는 드물었기에 주목된다. 간화선에 철학적 체계를 부여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여러 현대 서양철학 연구자들이 발제나 토론에 참여한다. 하이데거와 데리다 등 현대철학

불교학과 철학의 소통 기회

의 거장들과 원효스님의 화쟁을 접목해 학문적 성과를 이룬 김형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철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이정우 철학아카데미 원장,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 등이다. 이밖에도 철학계의 신진 학자들이 간화선과 철학의 면모를 견주고 드러내며 풍성한 담론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세미나가 열리기 전이기에 선불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불교학자들에게도 철학자들에게도 서로의 지적(知的)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학계의 화두는 통섭(統攝)이다.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사회

과학이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포괄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학문이 지나치게 분절되면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한 데 대한 반성이다. 불교학 역시 다른 학문과의 교류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2554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직원 일동

☯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